

동방신기 3人 관련 화장품 회사 中서 또 피소

입력 2009. 12. 3. 17:31 · 수정 2009. 12. 3. 17:31



声 明

CreBeau 产品推介会

- 一、时间：在 2009 年 7 月 18 日
- 二、地点：大连
- 三、与会成员：
金俊秀、金在中、朴裕仟等三名韩国股东成员，睿姿丽（北京）化妆品有限
责任公司其他股东成员



睿姿丽（北京）
化妆品有限责任公司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20090614' in black ink.

[뉴스엔 김형우 기자]SM엔터테인먼트와 마찰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과 관련된 중국 화장품 업체가 또 다시 중국기업에 피소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매체인 CCTV.com,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大連信聯商貿有限公司, 이하 대련대리상)은 12월1일 베이징 해정구 법원에 예자려(睿姿丽)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예자려는 동방신기 3인 멤버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다.

대련대리상에 따르면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자신의 주주이며 3명 멤버는 대련지역 제품홍보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면서 대련대리상으로 가입하라고 하였던 바 대련회사는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1일 소장을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09년 11월 대련대리상은 기타 사기 당한 대리상으로부터 예자려회사가 갑자기 철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사기극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련대리상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자려는 이미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구 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